

EXHIBITION

I LOVE YOU, I LOVE YOU NOT

The first exhibition of the 2017 program, <I Love You, I Love You Not>, is held in HITE Collection to introduce young Korean artists. The title comes from Yi Joonjong's drawing, 'Analogue Confession-Machine'. Before that, the initial title for the exhibition was named as 'Another Day', inspired by a song by Phill Collins - 'Another Day in Paradise'. 'Another Day' means literally another day and also repetitive every single day. When it comes to lyrics, a woman wandering the street in cold winter asks a man for help. Unfortunately, he pretends not to hear her and walk away. She desperately says that please think twice, it's another day for him and her in paradise. She is still there on the spot in pain from the blistered feet. It is necessary for us and others to keep bringing to mind a chance in daily life without hope. The chance is a buoy as an initial curation idea for curator. For this exhibition, the artists in their mid-career commended young artist. Selected 10 artists present their practice in various ways - installation, painting, performance, sculpture, video and sound. 'I love you, I love you not', is repeated on Yi Joonjong's works 'Analogue Confession-Machine', counting the number of flower petals to predict her mind and his mind as well. It juxtaposes with his situation. Many artists by their late 20s constantly agonize over whether to remain as an artist. Perhaps the contact from the exhibition is a new chance for them to stop suffering from their problem. The life with arts confuse mind over and over. The young artists may be going through that period now or in the future again. But they know this was an opportunity. They are expected to keep going driven by a buoy called 'Another Day' to meet another glorious moment like this time.

하이트컬렉션은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개최한다. 전시 제목은 이준용의 드로잉 '아날로그 고백기계'에서 착안됐고, 처음 기획이 시작될 때 필 콜린스의 노래 '어나더데이 인 파라다이스'에서 따온 '어나더데이'라는 가제가 있었다. '어나더데이'는 또 다른 날이면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이기도 하다. 추운 거리를 헤매던 가사 속 여인은 지나가는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남자는 못 들은 척 가던 길을 간다. 여자는 물집이 생긴 발로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한다. 그와 자신이 따뜻한 천국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간절하다. 희망이 없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돌아볼 기회는 기획자가 전시를 기획하면서 어렵듯이 끌고 온 부표다. 중견 작가가 신진 작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 작가를 선정한 이번 전시는 총 10인의 작가가 설치, 회화, 퍼포먼스,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작업을 선보인다. 이준용의 '아날로그 고백기계'는 꽃잎의 흠집에 기대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반복해서 적은 작품이다. 알 수 없는 속은 상대는 물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은 작가의 상황과 겹친다. 많은 작가가 20대를 지나면서 미술을 계속할지 말지 끊임없이 갈등한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제안받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접고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일 수 있다. 결국 예술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을 반복하는 여정인 셈이다. 참여한 젊은 작가들 역시 이미 그 시기를 겪고 있거나 앞으로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밟을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하나의 기회를 잡은 그들이 또 다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어나더데이'라는 부표를 따라 표류하기를 기대해본다. 전시는 6월 24일까지 계속된다. hitecollection.com

